

제11차 집국 회의

일시 : 2003.3.28 장소 : 총여실

☆ 일정공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3 콘서트 기획단 이대여위 오후 2시	24 북카페 오픈 여학생회 학.	25 국립여성대학 여성학학교#3 성매매 학생하나정.	26 공연팀 6시 (하자) 연생반.	27 여성학 학교 노수석추모문화제	28 총궐기. 반전총회 11차 집국회의 아름다운.	29 반전집회 정호, 김희은. 리시. 반총학.
30 콘서트 기획단회의 2시 이대여위	31 중운위 (미) 노. 공연팀 : 총여실(60) ↓ 반전집회.	4/1 열린세미나 6시, 저녁나	2 학공위. 공연팀 6시 (하자) 연생.	3 여성학학교 : 성폭력	4 4시 연성뿐만 12차 집국회의	5

● 국/팀별 활동 정리 / 반.

▼ 사무국/총무(독)

▼ 학술교육국(파룬, 늘, 노래)

- 여성학학교

▼ 문화정치국(여랑, 늘)

4번팀 : '반전' 공연, 3명, 늘

▼ 복지국

(파룬) #5

▼ 반성폭력팀(여랑, 늘, 노래)

▼ 여성노동팀 → 여성노동학교.

▼ 온라인매체팀(독)

- 홈페이지 업데이트

▼ 회장단

8 논의합시다

▼ 중운위사건

3. ▼ 여학생휴게실 실사 및 비품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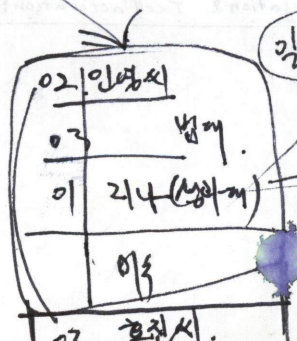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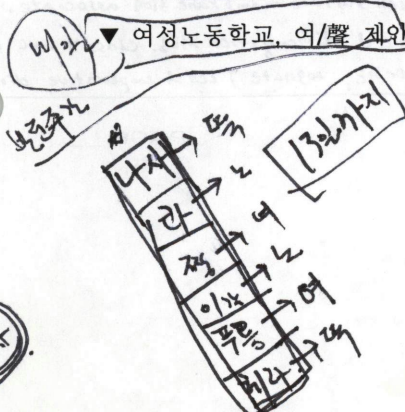
1. ▼ 북카페 구입할 도서 목록 작성

1. ▼ 사이버스페이스 구조물 30만 설치.

4 ▼ 여성주의자 반전프로젝트

▼ 수습편집위원회 4월호 잡지

▼ 여성노동학교, 여/생 제와



차별사 (4음주)

전지아파트, 김희은, 성희우 리리, 여학생들

팩

기화본, 트러러.

반전주인, 여대여위

여성주의자의 반전프로젝트!

1. 전쟁과 국가, 노무현에 대한 단상

반전집회에 노란 깃발을 들고 참석한 노사모, 당선 직후에 비해 너무나 초라해진 노사모의 모습을 기억한다. 참여정부, 국민이 만들어준 대통령으로 칭송받으며 한국의 '진보'를 한 발 앞당겼으며 많은 이들을 들뜨게 만들었던 노무현 정부는 당선되지 한달여 만에 그 진보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질문하게 만든다. 평화를 지켜야하지만 우리의 국익을 위해 전쟁을 지지한다는, 우리의 평화를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모순된 말,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이 단결 해야 한다는 촌스러운 설득을 들으며 여성주의자인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국가와 전쟁과 진보가 얼마나 낡은 남성적 개념인가를 생각치 않을 수 없다. 아직도 국정 안에 갇힌 상상력과 감정이입의 빈곤에 허덕이는 남성 민족주의자들, 파병결정에 초당적 합의를 보여주는 국회의원들에게 여성과 소수자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함을 강하게 말한다!

가장 현실적이지.

2. 전쟁광 사나이들의 스펙타클 게임구경

한국의 공중과 3사 방송사는 연일 특집뉴스로 이라크와 미국의 전쟁을 보도하고 있다. 그 보도는 이번에 미국이 어떤 최첨단의 무기로 어떻게 이라크를 공격할 것인가를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고, sf 영화에나 등장할 긴박감을 주는 배경음악을 깔고 마치 게임을 보여주듯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보도하고 있다. 어떤 사나이들은 전쟁 중계를 보며 변태적인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는데 전쟁을 스펙타클로 보면서 이리저리 분석하는,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은 전혀 없는 이상한 전쟁광들의 취향을 살펴보자. 평화를 이야기한다면, 반전을 지지한다면 무고한 민간인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지금 현지의 피해상황은 어떠한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도대체 왜 그들에게 사람은 없을까. 심지어 장갑차 사건 때 장갑차 자체에 대한 지식이 진실을 말해줄 것이라는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며 느꼈던 당혹스러움까지 이야기를 해봄은 어떨까. 왜 사나이들은 무기에 집착하는가. 혹은 힘에 집착하는가. 왜 국제정치는 언제나 힘의 논리로 이야기되는가.

• 최신 무기 //

3. 반미와 반전? 그 질적 차이를 찾아서

2002년 한국에는 반미의 물결이 넘쳐 흘렀다. 그리고 이번 전쟁에 대한 반전의 분위기도 자연스레 반미 감정과 연결되었다. 반전집회와 반미?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도식으로 볼 수 있을까. 반미로 전선을 그을 때 우리는 또 다시 국민 국가의 상상력에 갇혀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한, 미국만이 전쟁을 일으킨 것일까. 전쟁이라는 것이 손쉬운 해결책이 되어버린 지금. 당신들이 반미를 말한다면, 우리는 반전과 평화를 말해야 한다! 만약 미국과 전쟁을 해야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외치겠는가. 혹시 성전이라며 참전을 하지는 않을까? 과연 당신의 상상력 안에,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 왜 fucking usa가 반전집회에서 울려 퍼지는가. 촛불시위는 평화집회라 선전되었지만, 그 안에서 여성과 소수자는 역시나 소외되었고

그 답론은 참으로 크기만 했다. 이제 반전을 말하면서 다시금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여성과 소수자의 이름으로 전쟁에 반대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철저하게 힘의 논리, 강자의 논리로 돌아가는 세계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기에 더욱 반전과 평화의 의미를 성찰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

4. 여성성과 평화에 대한 사소한 문제제기.

왜 여성성과 평화가 결부되는가. 여성은 국가 안보라는 개념의 남성화 안에서 평화나 감성, 감정노동이라는 개념들과 연결되어 왔다. 여기서 우리는 자칫, 여성성=평화로움, 착함, 자비로움이라는 남성성에 반하는 개념으로 굳어질까 염려스럽다.

굳이 여성단체 사람이 어머니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남성화된 국가안보는 좋지 않은 개념이지만, 그 대척점에 있던 억압적인 개념을 재생산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아니, 만약 남성화된 개념들을 바로잡고 싶고 평화라는 개념을 여성의 이름으로 사유하며 긍정적인 연결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일 수는 없을까.

할 수 있는 일들

1주일 간 기획자보전(중도 앞 반전거리 만들기)+플래카드 제작(4월 둘째 주 내내 이런 내용의 자보를 통해 소통)

중도 앞 점심선전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을 듯. 반전을 주제로 한 노래들을 조용히 틀고 선전물을 나누어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데스크를 만들어 자료집을 배포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의 메일링을 오프라인으로 확보할 수도 있다

야외 작은 토론회 토론회라기 보다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보자. 반전집회 있는 날 맞추어 다른 일정 없는 시간 광화문 야외에서 간단히 모여 작은 퍼포먼스(후추와 컨택)와 자료집 공유, 간단한 발제로 이야기를 끌어낼 수도 있을 듯 하다. 재미나게 하는 방식은 좀더 고민할 필요가.

자료집 제작 성과물들을 즐겁고 재미난 언어로 풀어낸 자료집을 만들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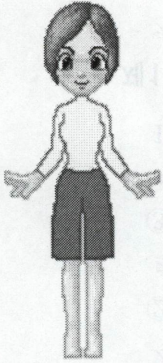
리플렛 제작 자료집을 압축한 리플렛. 선전전이나 등등에서는 이걸 직접 뿌릴 수도 있을 듯. 비용은 적게. 아주 편하게 만들어본다.

성명서 발표: 행사를 마무리하며 단위의 연대성명을 받아서 성명서를 작성하고 교문앞에 선전한다.

프리챌홈 > 커뮤니티 >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 | 소개글

준회원 [읽기](#) [쓰기](#) [삭제](#) [관리하기](#)Labor
woman
No War

게시판



[제안서]반전시위를 제안합니다.

작성자 타리 (ghaut)

번호 276

조회수 68

[크게보기](#)

작성일 2003-03-26 오후 9:11:41

친구관리 [받은 옷 사기](#) [내주소록에 추가](#) [커뮤니티 회원정보](#)

수신: 각 대학 여성주의자(일단 수도권 ^^);

발신: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 담당자: 타리 kwaw@freechal.com.016-302-8925

제목: 반전 연대시위를 제안합니다.

날짜: 2003년 3월 27일.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에서 반전시위를 제안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반전 시위가 계속되고 반전여론이 높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행정부의 이라크 침공이 계속되고 무고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도 반전과 파병반대의 주장이 터져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외교적, 경제적 '국익'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도 합니다. 또한 북한전쟁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으나 언론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고, 한국정부는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을 하면 북한의 전쟁위기가 평화롭게 해결될 것처럼 선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성주의자들은 '명분있는 전쟁', '평화를 위한 전쟁'이란 없으며 모든 전쟁은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용인하고 유폐한다는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무력을 통해, 무력을 옹호함으로써 '국익'을 얻으려고 하는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이며 여성과 약자를 배제하는지, 또한 그것을 통해 다른 전쟁이 '준비'되고 일상적인 폭력이 만연해지는지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는 전쟁을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집단에서 들리지 않거나 부차화되고 있습니다.

WAW는 여성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전쟁에 대해 비판하고, 전쟁의 본질과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의 여성주의자들과 연대해서 여러 대학을 거점으로 반전시위를 열고 시내에서 연대집회를 하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가안>

대학별 반전시위 4/7~11일

연대집회 4월 14일 마로니에공원. 페미니스트가수 안혜경씨 섭외 중.

(정말 모든것이 가안입니다. ^^);

내일오전에 관악여모, 이대여위, 연대총여, 고대여위, 숭실대 총여, 흥대 총여, 중대안성 총여, 동국대총여 등에 제안서를 보낼것인데 이외 다른곳에 보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제안해주세요.

생각해보니 4월 11일에서 18일까지 여성영화제가 열리는데 그곳에서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안서에 이름(시위제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좋은것이 없을까요?

<4월>

여성노동자교. 여/성

JAW 해.

여성노동자교장명: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나. 보건의

통계: 4월 7일

신원, 기획본

WAW 7월

신원
연도작성

시행주

시행주

노동자

여성노동자교.

MAY / 신원 → 여성

차위기시 여성/여성노동

여성노동자교

여성노동자

중간에 보내하는 여성주지. 2월

신원

신원

여 신원

신원

(10), 14, 22, 29

연관세이나

신원보전

여성노동자교장명: 신원 (가)

신원 보전

기획자 여성노동자 테이블

신원

여성노동자

신원보전

나이별 신원보전
(이름, 생일, 연령)

11
24

차위기 페이징

신원보전: 신원

나이: 신원

연관세이나 (3월)

신원보전 (2월) 주 (14)

기획자보전: 7~

신원보전: 14

신원보전: 7

신원보전: 신원, 여성노동 (13일야행)

신원보전: 신원

신원

신원보전: 신원 (신원보전)

신원보전 (신원 100% 이상)

신원보전 (신원보전)

인생의 길잡이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대중: 해안선
N-2

영양지
특수한
1.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주요: 해안선

주요: 해안선

주요: 해안선

주요: 해안선

주요: 해안선

주요: 해안선

주요: 해안선

주요: 해안선